

우리 바다에서 83종의 해양생물 새롭게 발굴

- 2023년도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27개)의 사업 성과, 해양생명자원 주권 강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023년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운영' 사업을 통해 세계 최초로 우리 바다에서 발견된 신종 34종**과, 국내에서는 처음 발견된 미기록종 49종*** 등 총 83종의 해양생물을 새롭게 확보하였다. 아울러, 기존에 알려졌으나 실물로 보유하지는 않았던 미보유종 129종도 추가로 확보하였다.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수집, 보존 및 관리를 위해 시설장비, 인력 등 일정 자격을 갖춘 기관을 심사 및 지정하여 운영

** 엔도플루라 경포엔시스(*Endoplura gyeokpoensis*, 해양식물), 뽕족턱두꺼비붙이이끼 벌레(*Escharoides buffonellarioides*, 해양태형동물) 등 34종

*** 무점매가리(*Trachinotus blochii*, 해양어류), 초승달애기불가사리(*Henricia kinkasana*, 해양극피동물) 등 49종

최근 해양바이오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리·활용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해양수산부는 대학교, 공공연구기관 등 27개 기탁등록보존기관을 지정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발견된 신종과 미기록종은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하여 우리나라의 해양생물 주권을 견고히 하는 한편, 확보된 자원은 해양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MBRIS)에 등록하여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 European journal of Protistology, Mycobiology 등 58편

한편,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해양생물 다양성은 높으나 접근이 어려운 해역*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기탁등록보존기관 공동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작년에 울릉도 해역에서 실시한 공동발굴조사에서 선형동물 트리코마 울릉엔시스(*Tricoma ulleungensis*), 트리코마 롱기카우다(*Tricoma longicauda*), 트리코마 브레비세타(*Tricoma breviseta*) 등

신종 3종과 이색관명게(*Botrylloides diegensis*), 스테노카리스 인터메디아(*Stenocaris intermedia*) 등 미확보종 7종을 포함한 총 328종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18(울릉도, 신종미기록종 1종), '19(거문도, 신종미기록종 1종), '20(백령도, 신종미기록종 1종), '21(추자도, 신종미기록종 1종), '22(거문도, 신종미기록종 3종), '23(울릉도, 신종미기록종 3종)

올해는 '바다의 날(5. 31.)'을 맞아 20개 기탁등록보존기관의 분류 전문가 70여 명이 참여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우도 일대 해역에서 공동발굴 조사(5. 27.~5. 30.)를 실시해 더욱 다양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 사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해양수산생명 자원 확보를 위한 조사를 더욱 활발히 추진하는 한편, 그 성과를 국제 저명 학술지 등을 통해 널리 알려 우리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주권을 강화할 것”이라며, “또한, 기탁등록보존기관을 통한 적극적인 자원 분양을 통해 자원의 산업화도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총괄>	해양정책관 해양수산생명자원과	책임자	과 장	이정로 (044-200-5670)
		담당자	연 구 관	박노백 (044-200-5675)
<담당부서>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다양성정책실	책임자	실 장	김형준 (041-950-0810)
		담당자	선임연구원	임병진 (041-950-0813)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참고 1 **울릉도에서 발견된 세계 최초 해양생물 3종**

사진 / 명칭	개요
 <p>해양선형동물(신종) <i>Tricoma ulleungensis</i> (트리코마 울릉엔시스)</p>	<p>■ 형태 및 생태적 특징</p> <p>몸은 약 409-567 μm로 상대적으로 짧고 얇으며, 수컷은 54-55개, 암컷은 55-57개의 각피환으로 구성되어 있다. 체표의 강모는 등면 6-7개, 배면 9-12개로 쌍으로 나 있다. 두부는 강모의 위쪽에서부터 끝쪽으로 갈수록 급격하게 가늘어지는 삼각형 모양으로 발달되어 있으며, 앞쪽 끝은 편평하다. 두부의 외각 각피는 매우 두껍게 경화되어 있으며, 두부의 폭은 길이보다 1.6-1.7 배 더 길다. 두부 강모는 얇고 갈라진 홈을 가지고 있으며, 높게 발달 된 꽃자루에 삽입되어 있다. 두부 강모는 20-22 μm로 두부 폭보다 약간 짧다. 폭의 1.2-1.5 배이다. 쌍기는 원형으로 입술 부위를 제외한 거의 두부 전체를 감싸고 있다. 교미침은 약간 구부러져 있으며 말단에 돌기를 가진다. 교미침지지대는 등아래로 융기되어 있으며 손잡이 모양의 말단을 가진다. 꼬리는 8-9개의 각피환으로 구성되어 있다.</p>
 <p>해양선형동물(신종) <i>Tricoma longicauda</i> (트리코마 롱기카우다)</p>	<p>■ 형태 및 생태적 특징</p> <p>몸은 약 380-514 μm로 상대적으로 짧으며, 37개의 각피환으로 구성되어 있다. 체표의 강모는 등면 6-8개, 배면 9-10개로 쌍으로 나 있다. 두부는 강모의 위쪽에서 끝쪽으로 갈수록 가늘어지며, 삼각형 모양으로 발달되어 있고 앞쪽 끝은 편평하다. 두부 각피는 입술 부위를 제외하고 두껍게 경화되어 있다. 두부 강모는 14-18 μm로 두부 폭의 1.2-1.5배이다. 두부 강모는 끝으로 갈수록 얇아지며 말단은 작게 열려있고, 강모에는 큐티클 홈이 나타나 있다. 쌍기의 앞쪽은 원형이고 뒤쪽으로는 원통형으로 3-4번 각피환까지 발달해 있다. 교미침의 말단에는 돌기를 가지며, 교미침지지대는 1/3지점에서 위쪽으로 약간 구부러져 있다. 수컷의 꼬리는 6개의 각피환, 암컷의 꼬리는 5개의 각피환으로 구성되어 있다. 꼬리의 말단 각피환은 상대적으로 매우 긴 원통형으로 전체 꼬리 길이의 56-65%를 차지하며, 9-10 μm의 방적돌기를 가진다.</p>

사진 / 명칭	개요
 <p data-bbox="225 804 518 898"> 해양선형동물(신종) <i>Tricoma breviseta</i> (트리코마 브레비세타) </p>	<p data-bbox="603 300 922 336"> ■ 형태 및 생태적 특징 </p> <p data-bbox="603 338 1422 875"> 몸은 약 228-255 μm로 매우 짧으며, 38-39개의 각피환으로 구성되어 있다. 몸의 맨 첫 번째 각피환은 큐티클로 덮여있지 않다. 체표의 강모는 등면 7개, 배면 8개로 쌍으로 나 있다. 두부는 약간 구형으로 앞쪽 끝은 편평하며, 부풀어진 입술을 가지고 있다. 두부 강모는 4 μm로 매우 짧으며, 넓고 얇은 꽃자루에 삽입되어 있다. 쌍기는 둥글며 중간 부위에 약한 수축이 있다. 교미침의 말단에는 돌기를 가지며, 교미침지지대의 말단은 갈고리 형태이다. 수컷의 꼬리는 6-7개의 각피환, 암컷의 꼬리는 5개의 각피환으로 구성되어 있다. 꼬리의 말단 각피환의 앞쪽 36-41%는 큐티클 층으로 덮여 있고 말단에 6 μm 방적돌기를 가진다. </p>

참고 2

공동발굴 조사 사진(2023년)



참고 3

2024년 공동발굴조사 장소(제주도 우도) 후보지



출처: 구글지도